

# 성산 갈바리아의 성 십자가 본당

##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6명 중 주일미사 202명 참례 / 참례율 : 28.21%

평일미사	토 (1/3)	월 (1/5)	화 (1/6) 내촌 / 본당	수 (1/7) 본당 / 송정	목 (1/8) 송정 / 본당	금 (1/9)
		12명	18명 / 20명	14명 / 12명	12명 / 24명	25명
주일미사 (1/4)	내촌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공소	송정공소	교중미사	철정공소
	28명	21명	22명	35명	79명	17명

## 우리들의 정성 주님 공헌 대축일

주일 헌금	1,382,000	교무금	810,000	감사 헌금	800,000
양성, 복지, 원로	131,000	미래 기금	32,000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356,000

**교무금** 임옥순, 이기희, 최재길, 용봉숙, 엄금순, 정현희, 서금자, 최미경, 권병연, 신정호, 김성현, 정하숙, 소옥선, 전용기, 정구호, 윤영배, 서정화, 김부용, 박희갑

**감사헌금** 홍성례(올리아) 200,000 안복현(데레사) 100,000 최삼순(카타리나) 100,000 신명순(요안나) 100,000 김희정(효주아네스) 300,000

##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4명 중 주일미사 142명 참례 / 참례율 : 19.89%

평일미사	토 (1/10)	월 (1/12)	화 (1/13) 내촌 / 본당	수 (1/14) 본당 / 송정	목 (1/15) 송정 / 본당	금 (1/16)
		12명	11명 / 14명	12명 / 13명	12명 / 22명	17명
주일미사 (1/11)	토요일 저녁	교중미사				
	14명	128명				

## 우리들의 정성 주님 세례 축일

주일 헌금	959,000	교무금	850,000	감사 헌금	420,000
양성, 복지, 원로	90,000	미래 기금	32,000		

**교무금** 이향숙, 김승옥, 조인순, 이기영, 최삼순, 박영미, 이천희, 함연하, 김정자, 김남수, 양금례, 김영자, 사정애, 강인식, 이파랑, 박갑성, 송기준

**감사헌금** 이기희(안나) 50,000 신오순(안나) 30,000 최재길(아오스딩) 50,000 김하옥(카타리나) 20,000 이인열(올리타) 20,000 허춘구(사비나) 50,000 최삼순(카타리나) 100,000 송기준(라파엘) 100,000

## 새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5년 1월 12일 기준

수입	우리 본당	1,410,000	지출		
	타본당	1,850,000			
	합계	3,260,000			
현 잔액		668,664,916			

**우리본당** 김성현(멜라니오) 1,000,000

**타본당** 남기홍(가브리엘) 500,000 홍천성당 500,000 연봉성당 500,000 신남성당 350,000

## 2026년 성산 갈바리아의 성 십자가 본당 사목 지침

### "한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며" (다니 3,51)

1. "그러자 세 젊은이가 가마 속에서 한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며 찬미하였다 (다니 3,51)."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의 명한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았던 세 젊은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는 불가마에 던져지지만 불길은 그들을 태우지 못했으며, 세 젊은이는 가마 속에서 한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대축일이면 성무일도 아침기도의 두 번째 시편기도로 하늘과 땅의 온갖 피조물들을 언급하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움 없이 한 마음, 한목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세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2. 희년의 은총과 함께하였던 2025년이 지나고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또다른 희년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사제들은 금경축, 부부들은 금혼식으로 기념하는 50주년은 그 긴 세월만큼 무척이나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지난 세월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꿀 시간이 되었습니다.

3. 2022년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교서에 따라 시작된 말씀살기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은 2023년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담은 후속 권고와 2024년 '성체와 가난' 이라는 주제로 심화된 두 번째 후속 권고와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목 교서에 따라 말씀살기와 '찬미받으소서' 두 가지 여정을 중심으로 2023년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2024년 "자신을 버리고" 라는 제목의 본당 사목 지침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다양함과 다름' 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버리고' 상대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였습니다.

4.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기쁨의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본당 성전 신축이라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만 가능할 어려움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 앞에 둔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한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하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 세 젊은이들처럼 우리 역시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한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하며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느님 백성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어

5. 지난 50년의 시간은 열정적인 여러 교우들의 노력이 만들어 온 기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힘겹게 공소 공동체를 만들었던 설립 이전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본당 승격을 이루어 내고 강가의 돌을 주워 모아 교육관을 짓고 함께 모금 활동을 하며 공소 5개를 한꺼번에 봉헌하기까지 하느님의 은총 속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함께하여 일구어 낸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한 마음으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먼저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노력에 앞서 하느님의 은총 속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6. 예수님께서서는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늘 외딴 곳으로 나아가 하느님께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은총 속에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 백성답게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과 함께 하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이미 꾸준히 걸어오고 있는 말씀살기의 여정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7.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만드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성경을 놓아 두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꼭 읽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미사 외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미사에 참례하여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는 한 해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고, 그 말씀은 성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온전히 함께하십니다. 의무감에 겨우 참석한 주일미사 때의 성체성사뿐 아니라 더욱 자주 하느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8.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며, 이는 단지 세례를 받고 매주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만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이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어 당신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들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함께 시작한 **되찾을 양 50명 봉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봉헌은 단순히 이름을 적어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는 일치

9.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각 지체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같은 성령 안에서 ‘다양성 안의 일치’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우리 공동체의 참된 친교와 일치를 위한 지난 노력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며 한 마음, 한목소리의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의 마음과 한목소리로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10. 이러한 이유로 자신을 버리고 하느님, 타인, 모든 피조물과 참된 친교를 나누는 일은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여정에서도 계속 강조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나의 목소리만을 내세우는 이기심을 버리고 작은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작은 이들의 음성, 제대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나약한 피조물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성령의 성전에서 새로운 미래를 희망하며

11. 교회는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집, 성령의 성전입니다. 주님을 모실 새 집을 짓고자 하면서 정작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주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과 더불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고해성사를 더욱 자주, 그리고 잘 준비하여 보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의 은총 속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실 우리의 집부터 먼저 깨끗하게 가꾸어 갑시다.

12. 새로운 미래를 희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외형적 성과만을 만들어 가는 시간들도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참된 구원의 빛을 전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희망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실천할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1) 하루에 한 번 성경 읽기
- 2) 한 주에 한 번 평일미사 참례하기
- 3)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 보기
- 4) 한 해에 한 명 냉담자 또는 예비자를 교회로 인도하기

2026년 1월 18일

성산 갈바리아의 성 십자가 본당 주임신부 **안효철** 디오니시오